

# “간화선, 자꾸 접하다 보면 다 알게 된다”

## 한국 불교 대표 선지식 진제 스님(동화사 조실)

“폴 니터 교수님께서 수만 리 먼 길을 오셔서, 한국 간화선을 잘 배워 세계 속에 동양 정신문화를 널리 홍보하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불명 진아(眞我)를 선사합니다. 동양 정신문화의 골수인 선법을 온 세계에 골려서 세계가 태평하고, 만민이 태평의 노래를 부르고, 초목이 수려함입니다.”

구랍 31일 대구 동화사 염화실에서 진제 스님은 경허(鏡虛)-혜월(慧月)-운봉(雲峰)-향곡(香谷)으로 이어져 온 법을 미국인 기독교 신학자 폴 니터에게 전했다.

1월 2일 폴 니터 교수는 “진제 스님은 이제 나의 스승이다. 저에게 ‘진아’라는 불명을 주었고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라는 화두도 주셨다. 그래서 며칠 동안 계속 생각을 했는데 처음으로 화두에 대해 대답해 보고 싶다”며 진제 스님에게 점점을 자청했다.

진제 스님은 니터 교수의 대답에 방(棒)과 활(喝) 대신 박장대소했다.

“생각을 놓고 간절히 간절히 일념이 지속돼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일년 상태에서 모든 보고 듣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삼매에 들어야 함을 명심하십시오”라 일했다.

진제 스님은 참선은 종교가 아님을 강조한다. 참선은 지혜를 계발하고 안락국토에 이르는 대자유를 얻는 수행방법일 뿐이다.

“한국의 간화선은 정신문화의 축입니다. 전쟁, 시기, 질투, 시비에서 전쟁과 갈등, 싸움이 벌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생활 속에 참나를 밝히는 선 수행을 꾸준히 연마하면 갈등의 원인은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나만 위대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동양 정신의 근본인 참선이 마음을 밝혀 지혜와 자비로움이 가득하면 모든 세상과 인류가 한 집

이고 한 몸이 됩니다.”

스님은 선의 생활화·세계화를 서원해왔다. 세계불전전산화협의회 후원자로 한국 선 불교의 보급을 위해 꾸준히 활동했다. 그럼에도 스님은 해외에서의 활동이 거의 없었다. 특히 외국인들 직접 지도해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진제 스님은 폴 니터 교수에게 한국의 간화선을 전하게 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아주 좋은 학자를 만났습니다. 저 분은 기독교 신학자이지만 마음은 불교인입니다.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 선(禪)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날 가르쳐준 간화선을 철저히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 온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벌써 점점을 받으려고 하더군요. 열정이 보통이 아니네요.”

진제 스님은 니터 교수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며 만남을 기뻐했다. 진제 스님의 말을 들던 폴 니터 교수는 “스님의 말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말하는 목소리 톤을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겁다”고 말했다. 진제 스님과 폴 니터 교수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진제 스님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간화선의 세계화에 한발 더 성큼 다가가게 됐다. 특히 진제 스님은 퓨전식 간화선이 아니라 한국식 간화선을 전 세계에 알리자고 강조했다. 니터 교수가 다리를 틀고 앉아서하는 좌선을 어려워하고, 화두공안을 드는 것이 쉽지 않음을 밝혔지만 스님의 뜻에는 변함이 없었다.

“한국 참구법이 제일입니다. 견성을 하고 바른 눈을 갖추려면 한국식으로 세계에 유교해야 합니다. 선문답이나 화두를 이해하기 힘들어 하는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

다. 자꾸 접하다 보면 다 알게 됩니다. 선지식의 법문을 귀가 따갑도록 들어야 됩니다. 입장 소멸은 물론이고 견성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사실 화두참구를 어려워하고, 좌선을 하는 동안 무릎이 아픈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행자 모두가 겪어왔다. 스님은 한국 선수행의 참맛을 전하는 것이 목표다.

“산승의 목표는 선이 세계화 되고, 바른 참선으로 진리의 눈을 갖춘 이들이 나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야 부처님 법이 천추만대에 흘러가지요.”

이번에 이뤄진 종교간 대화는 공식적인 일정 외에도 언론사들의 인터뷰가 끝없이 진행됐다. 모든 대담과 법문을 영어로 번역해 책을 편찬할 계획이다.

“폴 니터 교수가 몇 번을 미국에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미국에서 동양의 정신세계를 온 세계에 알린다면 투쟁도 다름도 없는 세계가 될 것이라며 초대했습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제가 몇 번이고 갈 생각입니다. 또한 앞으로 해운정사에 초대를 해서 대화를 나누고, 좋은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니터 교수는 스님을 뉴욕 유니언 신학대에 초대했다. 또 신학생들과 함께 해운정사에서 하안거에 동참하는 등 불교문화를 체험하며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진제 스님은 남북의 팽팽한 긴장과 종교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고자 폴 니터 교수를 초청했다. 스님은 “세상의 갈등을 풀어나가는데 종교지도자들의 역할과 영향력은 대단합니다”라며 “종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불교와 기독교 지도자들이 자주 만나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오늘날까지 기독교는 편협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남의 종교를 말살시키고, 지배하라는 가르침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가르쳤다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불교의 자비나 기독교의 사랑은 똑같습니다. 앞으로 종교인들은 자주 만나 어리석은 마음을 송두리째 녹이는 교화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행을 서로 연마하고 닦아 행하면 개신교나 불교나 동심일체(同心一體)가 됩니다. 세계는 자연히 안락국토가 되고 투쟁이 없는 세계가 되는 것이죠.”

스님은 그동안 개신교의 봉은사·동화사 팽발기,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불교 편취 동영상 배포, 정부의 종교편향 정책 등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스님은 “기독교인들 스스로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자기 종교를 매몰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스님은 종교의 바른 자세도 강조했다. 스님은 “종교인들이 세(勢)를 확장한다는 것은 무슨 소용생심”이라고 지적했다. 진정한 수행자이고 기독교인이라면 모든 이를 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종교라는 것은 순수하게 자기 계발을 통해 모든 인류를 안락국토로 인도해 동거동락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허세는 아무 소용없고 없거든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고 불교인이 된다고 해도 내실이 없으면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인은 내면 세계의 수양을 위주로 하루하루 살아가서 사바세계가 극락세계가 되도록 초점을 맞춰야 하지 힘만 과시하는 것은 유지하기 짝이 없는 것이지요.”

새해 벽두, 진제 스님은 이웃종교인과의 만남을 통해 종교화합의 열쇠를 제시했다.

신묘년 새해 스님은 “2011년에는 종교·정치인 등 모든 국민이 바라는 것이니 종교간 화합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글=이상민, 이나은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 진제 스님 수행담

1934년 경남 남해에서 태어난 진제 스님은 20살에 출가했다. 농사를 지으며 서당에서 한문 공부를 했다. 1954년 오촌 당숙을 따라 해인사에 불공을 드리러 갔다가 만난 조계종 초대 종정 석우 스님은 진제 스님에게 “이 세상에 나오지 않은 셈치고 도를 한번 닦아보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했다. “도를 닦으면 어떻게 됩니까?” “범부가 위대한 부처가 되네.” 진제 스님은 이 말에 감화돼 “위대한 부처가 되는 법이 있다는데 중놈이를 해도 되겠습니까?”라며 부모와 상의한 뒤 행장을 꾸렸다. 스님은 ‘참선을 해서 도를 깨쳐야겠다.

알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출가생활을 했다. 26살 스님은 성철 스님이 있는 팔공산 파계사를 찾았다. 점점을 받기 위해서였다. 성철 스님은 “나는 물라, 나는 물라”하며 응대를 하지 않았다. 스님은 향곡 스님을 찾아가었다.

“일라도 삼십 방이요, 이르지 못해도 삼십 방이다.”

진리의 바른 답을 해도 삼십 방을 맞고 못해도 삼십 방을 맞는다는 것이다. 바로 답을 못하자 “그것도 척 못 나오면서 뭘 알았다고 하느냐?”라며 쫓아냈다.

진제 스님은 오대산으로 들어가 공부를 하다 ‘일생을 이렇게 허송세월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향곡 스님을 다시 찾아가 화두를 내려달라고 했다.

“중국 향업 선사가 범문하기를 높은 나무에 임으로 가지를 물고 매달려 있을 때 밑에 지나가는 이가 ‘달마 스님이 서역에서 중국으로 오신 까닭이 무엇인가?’ 하고 물으면 어떻게 답을 하려는가?”

진제 스님은 이 화두를 해결하는데 2년 5개월이 걸렸다. 향곡 스님은 다른 화두를 내렸다.

“모든 부처님과 성인이 알지 못하는 심오한 일구를 알려주십시오.”

“99는 81이니라.”

“그것은 모든 부처님과 성인이 다 아신 진리입니다.”

“66은 36이니라.”

진제 스님은 더 이상 답변을 하지 않고 큰 절을 하고 법당을 나섰다. 향곡 스님은 그제

서 “오늘 범문은 이걸로 끝이다”고 했다.

스님은 1967년 향곡 스님에게 법을 인가 받았다. 당시 향곡 스님의 선문답이다.

“부처의 눈과 지혜의 눈(慧眼)은 묻지 아니하거니와 남승(衲僧)의 눈은 어떤 것입니까?”

“사오원래여인주(師姑元來女人做: 나이 많은 비구니는 원래 여자가 한다)”

“네가 어느 곳에서 나를 봤느냐?”

“관(觀: 빚장!)”

“울고, 울다!”

스님은 향곡 스님에게 인가를 받은 후 1971년 부산 해운대 근처에 해운정사를 창건해 참선 대중화의 길을 열었다. 1994년에는 동화사 금당선원의 조실을 맡아 참선도량의 선풍을 다시 일으켰다.

### 현대불교신문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 한국불교기자협회 공동캠페인 올해는 불기 2555년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온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기 위해 법을 펴시고 입멸하신지 2555년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서기(서력기원)는 기독교 성인의 탄생을 기준으로 년도를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불자들이 아무생각 없이 불교행사와 서식에 서기에 남용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불기 2555년을 맞은 올해 온 불자가 불기를 사용해 불자로서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고히 세웁시다.

- 사찰 내부 문서나 서식 포스터 홍보물 현수막에는 예) 2011포교전진대회 = 2555년 포교전진대회
- 사찰 밖에서나 해외에서는 예) 2555(2011) 불교행사 협조요청 2555(2011) korea buddhism week (한국불교주간) - 서기를 뺀다 부기

\* 좌선, 기도하시는 스님들께서 직접 착용해보고 인정하신 제품입니다.



관절염 예방, 무릎보호 기능성 기모 털내복

## 좌선·기도 전용 관절보호 털내의 SET

2겹 봉제의 강력한 관절보호 발열 털 기모 내의 세트

관절부분이 2중으로 제작되어 관절에 들어오는 냉기를 막아줍니다. 털원단 2겹 봉제로 원단과 원단사이 공기층이 형성되어 보온층이 뛰어납니다.

### 입은 듯 안입은 듯 가볍고 따뜻하게

섬유사이의 공기층이 단열효과를 발휘하여 외부 찬공기 유입을 막고 내부에서 발생한 열의 방출을 최소화 시켜드림어 우수한 원단의 탄력과 밀착성으로 겉옷 착용시 활동하기 편리합니다.

### 최고의 좌선 내의로 효율적

신축성이 강한 소재를 사용하여 몸에 밀착이 되어도 착용시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탁월한 소재의 원단으로 강하고 반복적인 움직임에도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 무릎관절 부분 2겹 봉제

무릎관절 부분이 2겹으로 봉제되어 좌선시 가장 취약한 무릎관절로 들어오는 냉기를 막아주고 관절을 보호해 줍니다. 추운 겨울 보다 효율적으로 신체보호 기능을 보여드리는 최고의 좌선 관절 보호 털내의 자신있게 선보여 드립니다.

- 색 상 : 외색
- 구 분 : 남성용, 여성용
- 사이즈 : 상의 - XXL / 하의 - FREE, XXL
- 가 격 : 상·하의 각 ₩20,000원

\* SET 구매 시 ₩38,000원



2중 재봉된 무릎부분

모든 부분 안감 울털

구입 및 제품문의

02)2264-7947 / 011-9947-7947

입금계좌 : 국민은행 777502-04-027453 예금주:김은정